

2024년 2/4분기 화성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

2024. 3.



화성상공회의소

[조사진행팀]

I. 조사 개요

1. 조사 목적

- 화성지역 제조업체의 2024년 1/4분기 경영 실적과 2024년 2/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계획 및 유관기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.

2. 조사 기간

- 2024. 03. 05.(화) ~ 03. 18.(월)

3. 조사 대상

- 화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체 70개사

4. 조사 방법

-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및 FAX 조사

5. 조사 항목

- 체감 경기, 매출액, 영업이익, 설비투자, 공급망 안정성 등의 실적 및 전망 BSI, 연초 목표대비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 등 9가지 항목

6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응답 업체가 조사 대상기간의 실적과 전망을 각각 전 분기와 대비하여 호전,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.

$$\text{기업경기전망지수(BSI)} = \frac{\text{호전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표시업체수}}{\text{총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$$\text{BSI} = \text{Business Survey Index}, \quad 0 \leq \text{BSI} \leq 200$$

※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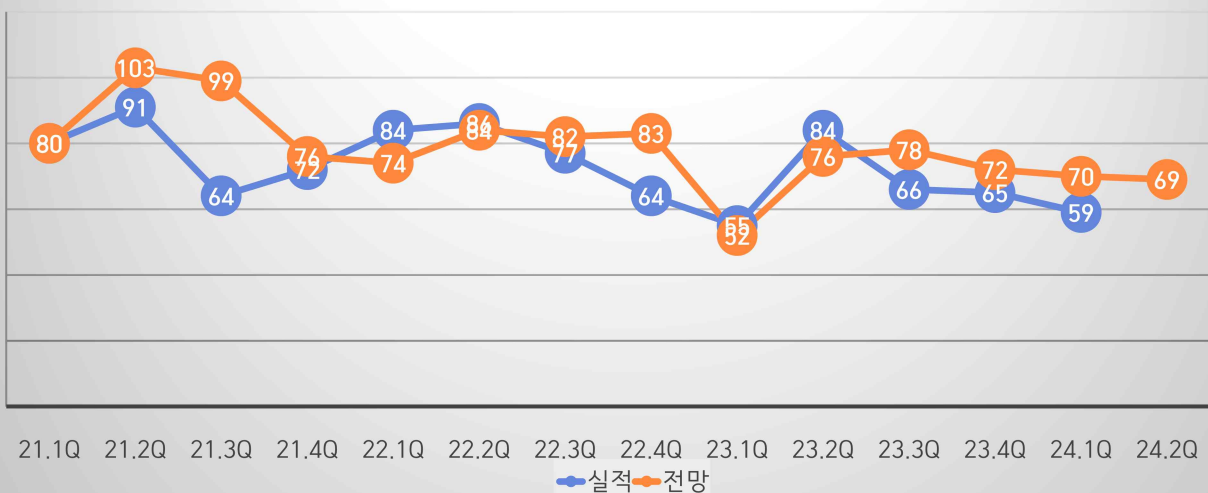
II. 조사 결과

1. 전반적 경기 전망

제조업 경기전망지수 69로 기준치(100)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나타나 2024년 2/4분기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24년 1/4분기 '70' → 24년 2/4분기 '69' (전분기 대비 1p 감소)
 -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원자재가 비용 증가, 국내외 거래처 발주 감소, 고금리 상황 등 대내·외 상황의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됨
- 2024년 1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'59' (전분기 대비 6p 감소)

BSI 실적 및 전망 차트



- 응답 기업, 경기 악화 전망에 무게
 - 경기 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47.1%, 직전분기와 비슷하리라 전망한 업체가 34.3%인 가운데, 경기 호전을 예상한 업체는 15.7% 순으로 응답

2. 항목별 전망

모든 부문(매출·영업이익·설비투자·자금 사정)에서도 기준치(100)를
하회하여 지역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예상

○ 매출(79), 영업이익(71)

- 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가·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제조기업 생산 둔화 흐름 지속, 제조기업의 국내외 발주, 거래처 수 감소로 인한 매출·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개선 불투명

○ 설비투자(81)

- 신규 투자보다 기존 설비를 수리·확장하는 등 설비투자 지연 전망

○ 자금사정(63)

- 국내외 경기 악화로 인한 내수, 수출시장 침체, 고금리에 따른 자본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제조기업의 자금 사정 또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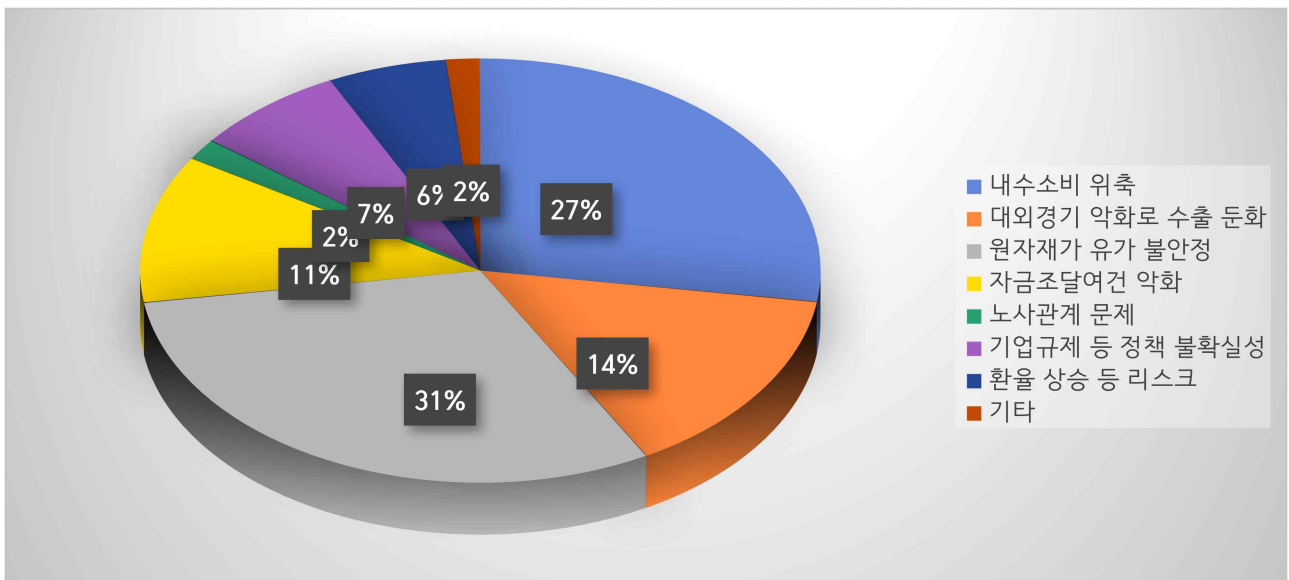
<항목별 BSI 변화>

항 목	2024년 1/4분기 실적	2024년 2/4분기 전망
체감경기	59(-7)	69(-2)
매출액	67(-4)	79(+4)
영업이익	57(+4)	71(+5)
설비투자	83(-12)	81(-9)
자금사정	51(-9)	63(+6)

III. 기업경영 핵심변수 조사 결과

- 2024년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위협적일 대내외 리스크로는,
 - 원자재가 유가 불안정(31%), 내수소비 위축(27%), 대외경기 악화로 수출 둔화(18%), 자금조달여건 악화(11%), 기업규제 등 정책 불확실성(7%), 환율 상승 등 리스크(6%), 노사관계 문제(2%) 순으로 답변

<그림 1> 위협적인 대내외 리스크 요인



- 현재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한 상반기 투자계획과 비교했을 때 예상되는 계획은 변화없이 계획대로 진행(49%), 당초 계획보다 축소, 지연(49%)이 동일한 수치로 응답 (중복응답 가능 항목)
 - 해당 답변에 이어 투자가 축소되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(39%),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(22%), 재고증가 등 수요부진(20%), 수출국 경기 불확실성(14%) 순으로 응답
 - 반면, 당초에 계획한 수준보다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로는 선제적 투자전략(50%), 정부지원 확대(25%) 순으로 응답

- 가장 우선시하는 투자 영역은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(22%), 생산설비 교체 및 확충(19%), 자동화·전산화 등 공정개선(19%), 인력개발 및 인재확보 (14%) 순으로 답변
 - 해당 답변에 이어 신기술 개발, 공정 개선 등 전체투자 중 혁신투자의 비중은 10~20%(43%), 10% 미만(34%), 30~40%(6%), 0%(6%) 순으로 답변됨

- 투자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(52%), 기술개발 및 혁신 필요성(18%), 경쟁업체 간 시장상황(17%), 현금흐름 등 이용가능 자금상황(12%) 순으로 답변
 - 지난해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계획에 특별한 영향이 없음(76%),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투자 증가로 반영 안됨(17%), 실제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짐(7%) 순으로 답변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

<그림 2> 투자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

